



한국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의 경험

이윤정¹ · 김주희²

¹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²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Experiences and Problems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mo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or Questioning, and Intersex (LGBTQI) People in Korea

Lee, Yunjung¹ · Kim, Ju Hee²

¹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cience, Seoul, Republic of Korea;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and problems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mong Korean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or questioning, and intersex (LGBTQI) people. **Method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employed in this study, which comprised 14 LGBTQ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May to June, 2021, and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Results:** Four categories-comprising nine theme clusters-emerged from the data, as follows: 1) hard-to-recognize gender identity, 2) blind spots in the healthcare system, 3) empathy and support in the community, and 4) new challenges to protect my precious self.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and detailed insights into the meaning of sex and reproductive health among Korean LGBTQI people. This finding could be utilized to develop effective questions for understanding not only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but also overall health problems of LGBTQI people.

Key Words: Gender identity, LGBTQI, Qualitative research, Reproductive health, Sexual orienta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LGBTQI란 여성동성애자를 일컫는 레즈비언(Lesbian), 남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정체성이 신체 성별과 반대인 트랜스젠더(Transgender),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특정 젠더 또는 섹슈얼리티로 자신을 한정 짓지 않는 퀴어 또는 퀘스처닝(Queer or Questioning), 남성과 여성의 일차성징과 이차성징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의 약어로 성소수자 인구집단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1].

성소수자를 정의하는 주요 개념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다. 성적 지향은 남성, 여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으로 끌리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이성애자는 이성에게, 동성애자는 동성(남성 동성애자는 게이,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에게, 양성애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애정적, 정서적, 성적으로 끌리는 성적 지향을 갖는 자를 말한다[2].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을 남성, 여성 또는 다른 성이라고 내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sex)과 일치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3].

주요어: 성 정체성, 성소수자, 질적연구, 생식건강, 성 오리엔테이션

*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용역사업(2021ER060100)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됨

IRB 승인기관 및 번호: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KHSIRB-21-134(NA)]

Corresponding author: Kim Ju Hee (<https://orcid.org/0000-0001-6586-7244>)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6-6, Kyunghedae-ro, Dongdaemun-gu, 02453, Republic of Korea

Tel: +82-2-961-0461 Fax: +82-2-961-9398 E-mail: juheekim@khu.ac.kr

Received: 12 October 2021 Revised: 13 November 2021 Accepted: 15 November 2021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성소수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크게 관심을 받으며 학문적 관심 역시 높아지는 추세이다[4]. 그러나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으로 정확한 성소수자의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이며, 연구 대상자 확보도 어려워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5]. 이러한 상황은 성소수자의 건강 관련 연구에서 두드러지는데, Lee 등 [1]은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임상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성소수자의 건강을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임상적 연구의 경우 성소수자 대상 지속적인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임상적 건강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는 곧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성소수자 건강 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한국 성소수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성소수자 건강조사 항목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성·생식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성·생식건강은 생식기관,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6]으로 적절한 성·생식건강 관리는 올바른 성별 정체성의 확립과 안전한 성관계를 통한 성매개질환의 예방,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증상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기 초기는 성적 접촉 등 성 건강의 신체적 측면인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빈번해지는 시기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성·생식건강의 고위험집단으로 분류되며 [7], 이 시기의 비효과적인 자가 건강관리는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나아가 결혼기에 불임을 증가, 생식기 악성질환 이환율 증가, 조기 치료와 예방 시기를 놓치는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성 간 연애와 혼인이 중요하고, 정상으로 인정되는 한국사회에서 '비정상'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분류하는 한국사회에서 성적 지향성이 명확하게 확립되는 성인기 초기부터의[8]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대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보건 [5,9-13] 및 상담[4,8]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주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13,14], 커밍아웃[7,9,15-17], 성소수자 커뮤니티[5,9,18] 등에 관한 것으로 한국사회의 성소수자들의 성·

생식건강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1]이 한편 이루어지긴 했으나 분석 결과 성소수자의 건강에 관한 임상 연구의 절반 이상이 하나 또는 소수의 연구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사례연구에 해당되어 기존의 건강연구를 통한 성소수자의 일반적 건강 현황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듯 성별 정체성이 더욱 다양화되는 요즘 성소수자들의 성·생식건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 성소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생식 관련 악성질환의 증가와 질환의 예방 및 조기 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성소수자의 성 관련 건강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들의 임상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 성소수자들의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건강연구를 위한 문항 개발 및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인간 경험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성소수자들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경험을 통해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의 본질을 이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소수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해 여전히 배타적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 성·생식건강문제에 관한 연구가 한국사회의 특수한 성·생식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문화적 이슈 등을 재조명하여 성소수자의 인권과 건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llaizzi [19]의 현상학적 접근방법으로 성소수자들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여 성소수자의 건강 현황 파악을 위한 문항개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소수자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소수자들의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연구 문제는 “성소수자들에게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 of LGBT People in Korea

Terms	Definition
Lesbian	Women who are attracted to and form deep relationships with other women
Gay	Men who are attracted to and form deep relationships with other men
Bisexual	Women or men who are attracted to and form deep relationships with other women and men
Pansexual	Sexual, romantic, or emotional attraction towards people regardless of their sex or gender identity
Asexual	The lack of sexual attraction to others, or a low interest in sexual activity. Distinguish from chastity or abstinence, which are sexual behaviors driven by personal or religious beliefs
Transgender	People whose gender identities differ from their respective sexes at birth. They include people who were recognized as male at birth but identify as female (MTF), those who were recognized as female at birth but identify as male (FTM), and those who feel uncomfortable with the sexual distinction of either male or female regardless of their physical conditions
Queer or Questioning	People who do not classify their sexual orientation as homosexual, bisexual, or heterosexual or their gender identity as male or female
Intersex	People who possess organs expressing both male and female sexes from birth or during growth or who have physical conditions that cannot easily be distinguished as either male or female

Source: Chingusai. Key results of the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Seoul: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2014. p. 10.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여 기술하기 위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편의 추출방법과 눈덩이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적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부모모임 커뮤니티 (<https://www.pflagkorea.org/>)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의 목적 및 인터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참여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성소수자들로부터 소개받아 총 1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 선정 조건은 성·생식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의 의미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성적 지향성이 명확하게 확립되는 성인기 초기 이후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6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활동을 한 성소수자로 제한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동성애자 3명, 양성애자 4명, 범성애자 4명, 무성애자 2명, 트랜스젠더(MTF, male to female) 1명이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대학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KHSIRB-21-

134)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담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면담과 녹음, 필사와 분석, 이익과 불이익, 비밀 보장, 익명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종료 후 연구자료 보관기간(3년)이 지난 후 바로 파기될 것과 연구진행과정에 노출된 개인적인 비밀 및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면담이 끝날 때 모든 참여자들에게 면담에 대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으며, 녹취된 전체 내용은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 신상 관련 정보를 삭제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5월 16일부터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른 6월 24일까지 연구자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자료수집이 시행되는 시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개별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Zoom 프로그램(Zoom Video Communications)을 활용한 화상 개별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한 사람당 1시간~1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면담하면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료화가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전화나 메일을 병행하여 구체화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하였으며, 면담의 도입 질문은 “성소수자로서 성·생식건강의 의미는 어떠한가요?”였으며, 본 질문으로 “성·생

식관련 건강문제(생식기능 및 생식과정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포함) 경험은 어떠했나요?”, “성·생식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등이었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내용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다.

5.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의 연구도구는 바로 연구자이기에 도구로서의 신빙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방법에 대한 숙련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여성건강분야 임상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에서 성·생식건강 관련 강의 경험을 7년 이상 가지고 있다. 또한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은 질적 연구로 수행하였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현상학 및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등에 대한 질적 연구 강의 경험과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출판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질적 연구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수행하여 게재함으로써 연구과정을 엄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성소수자 개개인의 속성보다는 전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현상학적 방법 중에 Colaizzi [19]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필사하였으며, 2단계는 필사된 면담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며 성소수자들의 성·생식건강에 관한 주요 문장을 찾아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3단계는 연구자들이 주요 진술문 속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구성하였다. 4단계에서 도출된 의미들 중 유사한 것을 묶어서 공통된 의미의 주제, 주제 묶음과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5단계에서 주제 묶음의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6단계는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의 의미에서 확인된 주제 묶음과 범주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7단계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도출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7. 평가준거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 [20]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연구의 사실적 가치, 독립성, 적용성, 일관성에 근거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는 연구결과의 정확하고 충실한 실제 반영을 위해 연구자들은 도출된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받았다. 둘째, 독립성을 위해 연구자의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판단중지(epoch)와 괄호 치기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연구결과 분석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참여자를 통한 평가작업을 거쳤다. 셋째, 적용성은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참여자에게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Colaizzi의 분석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는 동성애자 3명, 양성애자 4명, 범성애자 4명, 무성애자 2명, 트랜스젠더(MTF) 1명으로 총 14명이었으며, 연구의 목적이 전체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참여자의 연령은 21~38세까지였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기간은 1~11년까지 다양했다.

연구 결과,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의 의미는 4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범주는 ‘인정받기 힘든 성 정체성’, ‘의료사각지대’, ‘커뮤니티 속의 공감과 지지’ 그리고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범주와 주제 묶음은 Table 2와 같다.

1. 범주 1. 인정받기 힘든 성 정체성

‘인정받기 힘든 성정체성’의 범주는 참여자들이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차별에 따른 일상의 불편함과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짐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기 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1) 주제묶음 1: 차별받는 인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수용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색안경을 쓰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음을 느꼈으며, 사회 속의 소수자로서 자신의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사회적인 시선이 제일 장애요인이 되는데 특히 종교적인 시선이라던지 유교적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참여자)

사회적인 시선이나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 여가지고 학교에서 엄청 숨겨야 된다는 것 (중략) 저희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 것들은 아예 대화를 못하고 엄청 숨어서 다녀야 했던 점들 그런 게 가장 불편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사춘기 2차 성장 당시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주변 시선을 많

Table 2. Categories Theme Clusters and Themes on the Experiences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of LGBT People in Korea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
Hard to be recognized gender identity	Human rights discriminated against	Thinking social perspectives as the biggest obstacle
		Not feeling ashamed of their gender identity
		Angry at others for negatively viewing their gender identity
	Difficulty for me to be recognized even by my family	Family who don't listen to me
		Parents who do not accept their gender identity
Fear of 'Outing'	People who talk easily about other people's sexual problems Constant fear and anxiety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ystem	Ignorant medical team about LGBTQI	Medical staff who were ignorant of queer sex Lack of medical institutions or departments for LGBTQ people
	Difficulty in collecting information	Wrong information about LGBTQ on Google, Blogs or YouTube
	Empathy and support in the community	Empathy that recognizes me in the community
The power of free communication in the community among LGBTQI		Consolation and support from community interaction
New challenge to protect my precious me	Bold 'Coming out'	Comfortable and confident after coming out
	Efforts to bring it to the sunny side	Hope to change the perception of society as a whole Recognize that I have to first act

이 인식하던 때라서 오히려 더 여성성에 맞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참여자)

제가 그때 커밍아웃을 하니까 표정이 싹 굳으시면서 “네가 잘못 안거야”라고 하면서..(중략) 저는 아무래도 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거나 제 약점이라는 생각해 본적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제 자신을 부정당한 기분이라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참여자)

부모님께 집을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경제적 지원도 끊겼고 제 얘기는 아예 듣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남이에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는데 어찌겠어요 말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참여자0)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많이 접하셨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많이 불편해하시고 주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히려고 하나 내가 네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참여자3)

2) 주제묶음 2: 가족에게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주변에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며,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종교 등의 이유로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란 두려움에 현재까지도 가족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후 가족의 일원인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타인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단편적으로 동성애 이성애로 나누었을 때 동성애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는데.. (참여자6)

동성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반대가 심해져서 대화를 할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다니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그 대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자7)

3) 주제묶음 3: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고 자신을 드러냈을 때 가까운 이들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일 것에 두려워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성애 연결 짓거나 성 파트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견디느라 스트레스가 심했고 자신의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한 아웃팅에 대해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직장에서 왜 결혼 안 하나고 사귀는 사람 없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때 짜증도 나고 괜히 화를 내면 나만 이상한 눈으로 볼 거라 참아야 해요 괜히 이상하게 오해하면 골치 아프고. (참여자1)

요즘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드러내놓고 비판이나 비난은

많이 못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거 부감이라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을 테니까 (참여자)

지금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처음엔 이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괜히 제가 예민해져서 이야기를 돌리고 나중에 친구들은 제가 이상한걸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준 건 고맙지만 그 전에 누군가 얘기를 꺼냈다면 어땠을지. (참여자1)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 문제에 대해 수군거리면 괜히 찢리는 느낌.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전 직장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어서 잘못하면 직장 다니기도 힘들 것 같았고. 최대한 제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참여자)

2. 범주 2. 의문사각지대

‘의문사각지대’의 범주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의료진의 무지한 반응으로 병원을 기피하는 참여자들의 모습과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에 따른 시행착오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1) 주제목 1: 성소수자에 무지한 의료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소수자로서 성·생식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했다. 특히 성소수자들의 성·생식건강 및 성적 행위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의료지식을 가진 의료진을 만나기 힘들었고,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성과 관련된 사항들에 호기심을 더한 질문을 던지는 무지한 의료진의 반응에 병원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까지 있었다.

산부인과는 항상 기피하고 싶은데요.(중략) 본인들의 쿼어 성관계에 관한 궁금한 점을 항상 물어볼뿐더러 성관계도 남성과 해본 적은 없지만 여성과 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건 성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중략) 제가 정밀검사를 받고 싶어서 기기 삽입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녀막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프로세서널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되게 차별이라고 느껴거든요 (참여자8)

아무래도 병원에서 이런 진료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정적인데다가 LGBTQ를 진료하는 병원이나 조직이 되게 적어요 (참여자)

원치 않게 저의 성적인 것을 오픈해야 하는 경우가. 그게 좀 불편했고요 저는 non-binary 트랜스젠더라고 정체화를 한 상태고 여성도 남성도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데 병원은 제가 계속해서 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여자6)

병원 진료도 이성애자 시스템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을 많이 느껴요 (참여자2)

산부인과 가는 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따가워도 병원에 갈 마음을 잘 안 갖게 되고요 그냥 인터넷을 찾아서. 추측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

2) 주제목 2: 정보수집의 어려움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성소수자들 대상의 전문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주된 건강 정보수집의 경로로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외부 활동에 제한이 많이 생기면서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불편과 시행착오 또한 늘어났음을 호소하였다. 특히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성 관련 기구 및 위생용품 등은 수요가 적어 가격도 비싸고 이마저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경로는 많지 않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품질이 좋지 않아 구매 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성끼리의 성관계에 관한 편협한 정보밖에 들 수가 없어서 되게 친구들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성관계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는 매개체는 포르노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청소년기에 그걸 접하고 성관계는 좀 강제적이고 이상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참여자3)

구글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성소수자가 만든 설명문. 유튜브 중에는.. 설명들이 다 틀렸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젠더 트랜스젠더 무성애자라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틀렸었고 ‘아 이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싶어서 안 봤던 것 같아요 (참여자6)

성인용품이라고 하면은 값이 싸질수록 더 조악해지는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비밀스러운 곳에 사용되는 용품이다 보니까 진짜 대충 만들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상처가 난다던가 세척 문제가 생긴다던가 해서 오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2)

쓰면서 “야 이걸 굳이 이 돈 주고 써야 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특히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느끼는 소외감도 있죠 (참여자4)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자세히 모르니까 한두 번 써 보고 아예 안 맞아서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참여자)

3. 범주 3. 커뮤니티 속의 공감과 지지

‘커뮤니티 속의 공감과 지지’의 범주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를 초기에 망설였으나 커뮤니티 속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성소수자들과의 공감과 정상이라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자

신감을 찾아가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1) 주제묶음 1: 커뮤니티 속 나를 인정해주는 공감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은 지인의 소개 등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알게 되는데, 모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한 자신의 경험이 성소수자로서의 삶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음지로만 감추었던 지난 생활과 달리 커뮤니티 속에서 나와 같은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의 동질감, 나를 인정해주는 이들과의 공감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처음엔 왠지 불법인가 싶어서 커뮤니티를 의도적으로 피했었는데 제가 오히려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궁금했던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 하니 신기하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편안함이 있었죠 (참여자)

내가 편안하게 모든 걸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요 처음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엇보다 누구도 내가 왜 성소수자를 선택했는가를 묻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니까 행복했어요 (참여자)

2) 주제묶음 2: 커뮤니티 속 자유로운 소통의 힘

모든 참여자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커뮤니티 활동의 의미에 대해 '소통의 자유로움'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를 의미있게 보았다. 커뮤니티 속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 모인 구성원들이 서로의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노출하기 꺼리던 고민과 질문들을 꺼내 보일 수 있었고, 구성원간의 자신의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자꾸 얘기하다보니 더 힘이 나고.(중략) 예전보다 밝아졌다 고 주변에서 얘기해주니까 왜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을까 싶어요 계속 그랬다면 지금쯤 정신과 약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참여자)

각자의 경험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얘기를 이해 관계 하나 없이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상관계도 강압적이지 않아야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저도 답답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땐 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소통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니까요 (참여자)

4. 범주 4.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한 도전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한 도전'의 범주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점차 자신감을 가지며 커밍아웃을 실천하게 되고 자신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당당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1) 주제묶음 1: 과감한 커밍아웃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커뮤니티 활동의 초기 여전히 커뮤니티 속 삶과 현실의 삶이 이분화되는 경험을 하였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를 통해 일부 참여자들은 삶에서 중요한 자신의 성·생식건강의 문제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겠다는 결심을 한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오픈하기까지 두려움과 망설임의 시간도 많았으나 커밍아웃 이후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느꼈고 자신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말하고 난 후 훨씬 편해졌어요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했지만 제가 먼저 얘기하니 가족들도 좀 더 편해졌어요 (참여자)

인터넷 속의 나와 현실의 내가 더 이상 다르지 않아도 되다는 게 너무 좋죠. (중략)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얘기하기 전보다 일단 제가 편해졌고. 당당할 수 있어요 (참여자)

2) 주제묶음 2: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성소수자로서의 삶과 자신의 성·생식건강에 대한 인식이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실감하면서도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 문제를 음지가 아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양지로 끌어내어 성소수자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거고 (중략)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는 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니까요 (참여자)

우리끼리만 뒤에서 얘기해봤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니까.(중략) 뭔가를 해달라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참여자)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나. 너무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죠 코로나로 외부와의 소통은 더 줄었지만 계속 알려져 우리에게 대한 생각을 바꿔나가고 싶어요 (참여자)

논 의

본 연구는 성소수자들의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후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6개 주제, 9개 주제모음과 4개 범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복합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주요 관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커뮤니티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된 첫 번째 범주는 '인정받기 힘든 성 정체성'으로 참여자들이 성소수자로서 경험했던 사회적 차별과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전 세계적으로 LGBT 집단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게 오랜 세월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OECD [21]가 발표한 'Society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10점 만점으로 측정되는 동성애 수용도에서 한국은 2.8점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성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삶을 힘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자신의 성·생식건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거나 성별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타인의 수용 여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불안을 반복하는 성소수자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고려하여 [11] 성소수자들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 교육과 성소수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범주 '의료사각지대는 성소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인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과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에 따른 시행착오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경험 [22]에서도 성소수자 환자들의 개인관리 소홀과 쉽지 않은 병원 방문으로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안타까우면서도 성소수자를 대했을 때 '본인과 다른 사람 같아서 어떻게 하자?'라는 생각과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불편감과 부담감을 경험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Yi 등 [12]의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에서도 한국의 제도권 의료교육에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전무하여 임상역사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의 수준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을 마주하거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젠더 클리닉을 오픈하는 병원도 늘고 있으나 무엇보다 성소수자가 증가 추세이고 이들이 경험하는 성·

생식건강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기본 진료 에티켓을 비롯한 이성애자와 다른 성소수자의 건강문제 특징 등에 대한 지식 및 현장실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커뮤니티 속의 공감과 지지의 범주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성소수자들과의 공감과 정상이라는 느낌을 통해 자신감을 찾아가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Chong [10]의 연구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통해 관련 정보와 지식을 얻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성소수자 동아리나 커뮤니티 활동에서 얻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료들 사이에서 느끼는 안정감을 통해 성 정체성에 대한 의문 해결 및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 자존감 또한 세우는 계기를 맞이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성소수자들과 공감하고 커뮤니티 속에서 경험에 근거한 지지와 도움을 받으며 편안함과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데, 한국 LGBTI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보고서 [18]에 따르면 응답자(805명) 중 69.2%가 LGBTII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참여 경험이 있으며, 90.4%가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확장이 얼마나 빠르게 널리 이루어졌는지 짐작하게 만든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로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의 친교'(73.9%)를 중요하게 여겨,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병적인 존재로 볼 때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정상성을 입증시켜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다만 국내 대다수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인증해야 하는 사이트, 어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형태라 [9] 자신에게 맞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성별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혐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장기적으로 성인기 정체성과 성·생식건강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성소수자 지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GSA network (Gay-Straight Alliance network, 미국 청소년 성소수자 지지조직)와 같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지조직 및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학교 성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 성소수자의 올바른 성별 정체성 및 성·생식건강 교육,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한 도전의 범주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커밍아웃을 통해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거나 성소수자들의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형태로 커밍아웃(coming out)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고 아웃팅

(outing)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밝혀지는 경우를 말한다[17].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of the closet)'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Jeong [14]은 커밍아웃을 통해서 성소수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경험한 수치심, 죄책감, 답답함과 같은 감정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Chong [10]은 성소수자 청년의 커밍아웃의 의미를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필수적인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커밍아웃의 의미가 모든 성소수자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명확하고 단일한 차원이자기보다 당사자가 속한 환경(상황, 신념, 가치, 관습 등)의 차이와 다양성이 충분히 그 의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관점이다[16]. 연구 참여자들 역시 초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감추거나 외부로부터의 부적응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의 시작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주변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지지체계에 따라 과감한 커밍아웃을 하거나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 성소수자는 상대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당하는 경험이 적고 보통의 일상을 얻게 되지만, 자신을 늘 숨겨야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짓말과 거짓행동으로 타인과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못한 불편함과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5]. 특히 아웃팅은 대부분 성소수자가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17] 아웃팅 경험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 성소수자는 아웃팅을 '폭력', '두려움', '사회적 살인'과 같다고 설명한다[15]. 참여자들은 커밍아웃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한편,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이는 커밍아웃이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성에 대한 자기수용에 의해 사회의 선입견과 차별 등에 대응하는데 더 효과적인 적응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커밍아웃 이후 심리적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심리적 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커밍아웃 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성·생식건강

문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였다. 특히 성소수자들이 인식하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성·생식건강 문제가 참여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소수자들의 성·생식건강문제 경험은 생물학적 성(sex)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젠더(gender)의 의미를 포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성소수자로서 성·생식건강 문제가 가족이나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힘들어 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속 공감과 수용을 통해 위로받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키워나간다. 또한 성소수자로서 올바른 의료정보지원의 부족과 성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 등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이 자신의 삶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성·생식건강 문제에 관한 스스로의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이에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성·생식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전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과 달리 성소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조사를 통한 성소수자의 성·생식 건강문제의 이해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유형이 성소수자의 일부에 해당되고 그룹의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으나 한국 성소수자의 성·생식건강 조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성소수자의 생물학적·사회문화적 성·생식건강에 대한 이해와 건강문제의 총체적인 파악을 돕기 위한 문항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성소수자들의 성·생식건강 문항 개발을 통한 성소수자 대상 코호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성소수자들의 성·생식 건강의 의미를 반영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성소수자들의 유형에 따른 성·생식건강의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ORCID

Lee, Yunjung

<https://orcid.org/0000-0001-8112-1629>

Kim, Ju Hee

<https://orcid.org/0000-0001-6586-7244>

REFERENCES

1. Lee HM, Park JY, Kim SS. LGBTQI health research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 *Health and Social Science*. 2014;36:43-76.

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Answers to your ques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and homosexuality. [Internet]. Washington, DC: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cited 2014 January 24]. Available from: <http://www.apa.org/topics/lgbt/orientation>
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transgender people,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Internet]. Washington, DC: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cited 2014 August 8]. Available from: <http://www.apa.org/topics/lgbt/transgender.aspx>
4. Joo JH. Hidden lives of Korean LGBT adolescents: A qualitative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7;23(1):175-215. <http://doi.org/10.24159/joec.2017.23.1.175>
5. Son SY, Lee JH. A qualitative study on the the meaning of community participation among sexual minor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6;68(2):233-56. <http://doi.org/10.20970/kasw.2016.68.2.010>
6. Seo K. Reproductive health.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9;52(4):387-90.
7. Finer LB, Henshaw SK.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006;38(2):90-6. <http://doi.org/10.1363/psrh.38.090.06>
8. Kim HK, Auh SY. Recognit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and the experiences of coming out of the closet by young adult gay 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9;37(3):37-54. <http://doi.org/10.7466/JKHMA.2019.37.3.37>
9. Kim JE. A qualitative study on sexual minority communities in universities: focused on community experiences of sexual minority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2020;14(1):155-76. <http://doi.org/10.22867/kaqsw.2020.14.1.155>
10. Chong HS. Re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coming out by sexual minority youths: "The way to show who I truly 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20;51(1):139-71. <http://doi.org/10.16999/kasws.2020.51.1.139>
11. Yi HR. The effect of minority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sexual minorities (LGB) in Korea.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p. 1-127.
12. Yi HR, Lee HM, Yoon JW, Park JY, Kim SS.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5;35(4):64-94. <http://doi.org/10.15709/hswr.2015.35.4.64>
13. Seong JS, Lee HJ.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and resilience of lesbian and gay activ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0;31:173-204.
14. Jeong HY.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exual identity of juvenile sex minoritie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8. p. 1-89.
15. O'Malley OE, Kann L, Vivolo-Kantor A, Kinchen S, McManus T.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among sexual minority high school students, 2009-2011. *Th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14;55(3):432-8. <http://doi.org/10.1016/j.jadohealth.2014.03.002>
16. Kotze E, Bowman B. Coming-out confessions: Negotiating the burden of lesbian identity politics in South Africa. *Journal of Homosexuality*. 2018;65(1):1-18. <https://doi.org/10.1080/00918369.2017.1310545>
17. Kim CM, Lee JH, Kwak WJ. Coming out and outing experiences of sexual minority youth in South Korea: Using photovoice. *Journal of Social Science*. 2020;31(4):231-55. <http://doi.org/10.16881/jss.2020.10.31.4.231>
18. Chingusai. Key results of the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Seoul: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2014. p. 10.
19.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8-71.
20. Guba G, Lincoln S.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Densin NK and Lincoln YS(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1994. p. 105-18.
21. OECD.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2019. p. 13-50. http://doi.org/10.1787/soc_glance-2019-en
22. Kim MK, Kim HY. The nurse's experience in caring for LGBT patients: Phenomenological stud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3):541-51. <http://doi.org/10.5392/JKCA.2021.21.03.541>